

10월 1일 한강서 뛰어오

서울광역신도회 주최, 달마마라톤·걷기명상 등

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회장 김진관)는 10월 1일 서울 여의도 수변마당 일원에서 제2회 한강행복문화축제를 진행한다.

이번축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환경마당. 환경마당에서는 환경 NGO가 공식 발족될 예정으로, 발대식에는 각 사찰 소속 신도회, 청년회, 불교대학의 학생들과 신행단체 및 불교신앙회의 회원이 참가한다. 또 사찰 및 신행 단체별로 한강 유역을 구역별로 관리하며 향후에

도 환경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토회가 벌이고 있는 '빈그릇운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즉석 서명운동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5km, 10km, 하프코스, 30km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달마마라톤과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스님이 지도하는 '걷기명상', 하유스님의 법고와 원효대사 무애춤, 연예인 축하쇼 등으로 축제마당은 이어진다. (02)733-0271

유철주 기자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착공

태고종 29일 기원법회

태고종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착공식 및 건립불사 원만성취 기원법회가 9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사간동 불사 현장에서 봉행된다.

태고종은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건립성금모금과 3천불 모연불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남은 건립불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전

승관이 종단 새 역사 창조의 기반을 조성하는 산실이 되도록 중도들이 일심 단결하여 대작불사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승관 신축부지 일부에서 옛 건물터가 발견돼 문화재 발굴 정밀조사가 이뤄져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태고종은 9월 21일 선암사 대웅전에서 총 2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29기 합동독도수계산립 입제식을 봉행했다.

김원우 기자

동국대 경주 교수회 총장불신임 투표

9월 27~29일 실시

그동안 실시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던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홍기삼 총장 불신임 투표가 9월 27~29일 사흘간 강행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재직 교수 약 370여명 가운데 각 단과대 대표 3인으로 구성된 교수회 대의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중간평가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총장 불신임 투표는 동국대 사상 초유의 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투표결과에 따라 서울캠퍼스를 비롯한 불교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투표는 각 단과대학 교학과 및 경주 포함 일산 분당한방병원 등에서 실시되며 개표는 29일 오후 3시 경주 교수회 사무실에서 실시된다.

조용수 기자

"필동병원 비효율적 매입"

동국대 조사특위 발표

조계종 중앙총회의 '동국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지승)'는 9월 22일 중앙총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필동병원매입 관련 의혹 등 현안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조사활동을 벌였던 특위 소위원회는 "총 1000억원이 넘는 부채 급증으로 인해 학교존립에 대한 위

기감이 팽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재단과 교수, 학생 등 학교 구성원간의 분열이 심화되고 재단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대해 영배 스님은 "특위가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조사활동을 벌인 적이 없었는데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동국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수 기자



법장 스님 법구 기증으로 노년 여성 불자들의 '생명나눔'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사진은 9월 23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실을 방문한 한 불자들이 장기기증을 신청하고 있다.

생명나눔 열풍 전국 확산

법장 스님 법구 기증이후 문의·신청 10배 증가

"장기기증을 하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최근 생명나눔실천본부(이하 생명나눔)에는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장기기증 문의와 신청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생명나눔 이사장이었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법구가 9월 12일 동대 일산병원에 기증된 것을 계기로 불자들의 '장기기증' 신청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생명나눔 측은 9월 23일 "평소와 비교해 장기기증 신청과 문의가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하루 5건 이내에 불과했던 장기기증 신청·문의 전화는 현재 약 50통 정도. 게다가 인터넷과 우편엽서, 직접 방문 신청자들까지 더하면 실제 장기기증 신청·문의 건수는 훨씬 늘어났다고 생명나눔 측은 설명했다. 장기기증의 형태까지 달라졌다. 사후 각각 기증 신청만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사후 시신기증 및 장기기증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생명나눔' 열풍은 지방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생명나눔 광주전남지원의 경우 일주일에 3건 남짓이었던 장기기증 문의가 10배 정도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광주전남지원 정철희 간사는 "이전까지는 '장기기증'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다면, 법장 스님 법구 기증 이후에는 불자들이 '장기기증'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신청자가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간사는 "수차례의 캠페인보다 큰 스님의 '본보기' 한 번이 '생명나눔' 알리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말했다.

이런 생명나눔 열풍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노년층 여성 불교신도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법장 스님의 영향으로 사후 시신기증을 주저하던 노년층 불자들의 상당수가 생명나눔의 원을 세우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명나눔'에 뜻을 갖고 있었으나 선풍 마음을 내지 못했던 이들에게 법장 스님이 좋은 표본이 된 것이다.

23일 생명나눔 사무실을 방문, 사후 시신 기증에 서명한 김성복(92) 어르신은 "이번 추석에 자식을 모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신기증을 서약했다"면서 "법장 스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02)734-8050 글·사진=김장진 기자

법장 대중사 추모제

조계사-수덕사 등서 봉행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법 장 대중사 추모제 조재와 2재가 9월 17일과 24일 예산 수덕사와 서울 화계사에서 각각 봉행됐다.

3재는 10월 1일 오전 10시 합천 해인사, 4재는 8일 오전 10시 서울 법릉사(비구니화관), 5재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생명나눔실천회),

6재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도선사, 49재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 100일재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예산 수덕사에서 각각 거행된다.

그러나 수덕사, 선선사, 조계사에서는 조재부터 49재까지 모두 엄수된다.

남동우 기자

北 영통사 10월28일 낙성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0월 28일 개성에 복원 중인 영통사의 낙성

법회를 봉행한다고 9월 23일 발표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등은 22~23일 금강산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정서정 서기장 등 북측 실무자들과 만나, 영통사 낙성법회 날짜 등에 대한 최종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와 관련 무원 스님은 "북측에 남북인원을 350명까지 늘려달라고 추가제안을 한 만큼 인원조정 여지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中 선종 되살리는 불사 시급"

조계종 선원장스님 22명 선종원류 찾아 중국순례

조계종을 대표하는 선원장스님 22명이 선종의 원류를 찾아 중국 조사 스님들의 수행처를 순례하는 뜻 깊은 불사가 9월 21일 14박15일을 일정으로 회향했다.

고우 무어 해국 현산 인각 설우 스님 등 조계종 수행지침사 <간화선> 편찬에 참여했던 스님들은 1조 달마 선사부터 2조 혜가선사, 3조 승찬선사, 4조 도신선사, 5조 홍인선사, 6조 혜능선사가 수행했던 유적지들을 참배하고 한국불교 간화선의 원류를 확인하면서 곳곳에 배인 조사 스님들의 구도열정을 가늠하며 감동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순례에서 선원장스님들이 주목한 곳은 중국 현지에서 일고 있는 7조 남악회양 선사의 부도와 수행지인 복업사, 그리고 8조 마조도일 선사의 주석처인 마경대와 남태사. 선원장스님들은 한국 선종사에서 다소 가려진 이들 조사 인연지에 참배하고 끼친 법력을 다시 세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선종의 원류인 중국 조사 스님들의 선맥이 현재 중국 스님들에서는 단절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 선원장 스님들은 중국 현지에서 선종을 되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용수 기자



5조 홍인 선사가 법을 썼던 오조사 입구에서 기념촬영한 조계종 선원장스님들. 사진제공=조계종 전국선원총회

천일청산 촛불집회 6일 조계사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입적으로 연기됐던 '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집회'가 9월 6일 조계사에서 개최된다.

법장 스님 총무원장 가산 스님은 "최근 천일과 후손들의 땅 찾기가 계속되고 내원암 소송 공판도 진행되고

있어 촛불집회를 가능한 빨리 개최하려 한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에 앞서 불선사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민족문제연구소는 9월 25일 남양주 수락산 마당바위 유원지와 내원암 등지에서 '내원암 수호 등반대회'도 진행했다. 유철주 기자

통도사 젊은 승가회 단식 돌입

통도사 주지 직무대행 현문 스님의 사퇴를 촉구하며 9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차례 참회정진과 삼보일배를 가졌던 '통도사 젊은승가회' 스님들이 단식에 들어갔다.

'통도사 젊은승가회' 스님들은 '현문 스님 사퇴를 위한 단식 정진에 들어가며'라는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현문 스님이 주지 직무대행

임명장을 받아와 승가의 약속과 신뢰를 깬다"며 2차 정진에 들어간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통도사 집행부는 "방장 인준이 이뤄지면 사퇴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통도사 내분과 화합을 꾀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희희 기자

"제2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찾아가는 포교, 지역사회로의 회향'을 지향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강원일보사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오대산의 개산일에 즈음하여 '마음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이라는 모토로 '제2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를 국민문화·수행공간으로 개방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로 마련한 제2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오색 가을 단풍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를 한껏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평창군, 탄허불교문화재단 등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9월 30일(금요일)	10월 1일(토요일)	10월 2일(일요일)
09:00	월정사 선원 기공식		
10:00	대법륜전 삼천불 점안식	경전 봉독	
11:00		불교동요배우기	강릉어린이 춤 공연
12:00	석가모니불 진신사리 이운식 및 육법공양	사물놀이 사찰학춤	사찰학춤
13:00		전국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한국·대만 채식음식 향연
14:00	개막식·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강원지역 재난극복 기원 영산대제	사찰전통무술시연	국제 학술세미나 상원사 동종의 종합적검토
15:00			원주 쇼나타윈드 오케스트라 산사연주회
16:00	음악공양 - 니르바나필 오케스트라		사찰전통무술시연
17:00		청소년 댄스 공연 Quiet Light in 4on4 B-Boys Battle	사물놀이
18:00		천년의 소리 찾아가는 별빛 걷기	
19:00	강원지역 불자 합창단 경연대회		산사 선음악회 - 퓨전국악그룹 슬기둥
20:00			

상설행사

◎ 수 영 일일 선방 체험 / 반야심경 사경 / 경전 독경 / 1080배 / 오대산참배, 윤장대 체험 ◎ 대 회 제1회 오대산 디지털 사진 촬영대회
 ◎ 전 시 사진으로 보는 월정사 / 중국 오대산 문수신앙 사진전 / 불교 다큐멘터리 상영회 ◎ 시 연 불교사물(법고, 범종, 운판, 목어), 사찰전통무술, 서각 등
 ◎ 체 험 사찰 염색, 인경(탁본), 불교사물체험, 단청그리기, 연등만들기, 합창주 만들기, 십자수, 다도 및 꽃차 체험, 도자기 빚기, 전나무 숲길 생태체험 등
 ◎ 판 매 불교기념품, 우리 옷, 오색음식, 다포, 다구, 강원지역 특산물 판매...

불기 2549(2005)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 강원일보사 사장 최 승 익